

정부는 GTX-A가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보도 내용 (땅집고, 8.9) >

- ◆ 정부 호언장담한 GTX-A 2025년 전구간 개통, 사실상 불가능
 - 수서~동탄 '24년 상반기, 운정~서울역 '24년 하반기로 개통을 계획했지만, 공사 추진현황과 시운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GTX-A 「수서~동탄(재정)」은 '24년 상반기, 「운정~서울역(민자)」은 '24년 하반기, 삼성역(서울시)을 포함한 전구간 개통은 '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,

-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GTX-A가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적기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 중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

□ 특히,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인 GTX-A 수서~동탄 구간은 목표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정률을 확보하는 등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,

-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종합시험운행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등 GTX-A의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재혁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981)
			사무관	심보경 (044-201-3967)